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경쟁과 비교 중심의 심리적 반응 패턴의 변화양상: 잠재전이분석의 적용*

전희정**

I 알기 쉬운 개요

고등학생들은 상대평가 제도 속에서 서로의 성취를 비교하며 경쟁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쟁적 환경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심리적 적응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이 1년의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방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의 남녀 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불편한 비교와 경쟁, 성적에 대한 좌절,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 자기집중, 진로집중의 여섯 가지 지표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각 시점에서 학생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비교와 경쟁이 우세한 집단, 둘째는 비교와 경쟁이 비교적 완만한 집단, 셋째는 자기집중이 우세한 집단이다. 비교와 경쟁을 많이 의식할수록 좌절감과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이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자기집중과 진로집중이 높은 집단은 좌절감과 불편감이 낮고 부정적 자아상 수준 또한 낮게 나타났다. 또한 1년 후 비교·경쟁 우세 집단의 약 80%는 동일한 유형을 유지한 반면, 자기집중 우세 집단은 약 53%만이 같은 유형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더 컸다. 이는 경쟁 중심의 심리적 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이 연구는 202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CD202011420001).

** 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chun@pknu.ac.kr

투고일 / 2025. 9. 7.

심사일 / 2025. 11. 11.

심사완료일 / 2025. 11. 24.

I 초록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유형을 확인하고, 1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심리적 경험의 전이양상을 탐색하였다.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28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상대평가로 초래되는 심리적 경험의 지표로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 자기집중, 진로에 집중함을 측정하였다. 12개월 간격의 종단 자료를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에서 3집단 모형이 최적의 모형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집단은 비교와 경쟁이 두드러진 집단, 온건한 수준의 비교와 경쟁을 보이는 집단, 자기집중이 우세한 집단으로 구분되는 뚜렷한 심리적 경험 패턴을 보여주었다.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그리고 부정적 자아상의 네 개 지표는 함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반면, 자기집중과 진로에 집중함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나타냈다.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은 심리적 좌절감과 불편감이 높고 자기집중 수준은 낮았으며, 자기집중 우세 집단은 비교와 경쟁에 따른 불편감이 낮고 자기집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잠재전이분석 결과,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은 약 80%가 1년 후에도 동일한 집단에 머무른 반면, 자기집중 우세 집단은 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을 보였다. 이는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비교와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심리적 태도가 심리적 어려움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 참여가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적 경험 유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안정성은 경쟁 중심의 심리적 경험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자연스럽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개인차와 그 지속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정책적 개입 방안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상대평가 제도, 사회비교, 심리적 경험, 고등학생, 잠재전이분석

I. 서 론

한국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22).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이 공동으로 수행한 [2024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41.3%와 43.4%로, 10명 중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을 보고한 비율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7.9%, 27.5%로 상당수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고민 내용 중 약 48.8%가 학업에 대한 것으로, 이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의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치열한 학업 경쟁이며(김정호, 이경숙, 2000; 김진아, 2015), 학업 경쟁에서 상대평가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절대 평가가 아닌 동료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Lok et al., 2016). 상대평가는 단지 평가방법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경쟁에 기반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전희정 외, 2019). 교육부는 2025년부터 상대평가 등급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였으며(교육부, 2023), 학생들은 여전히 상대평가 틀 안에서 학업성취를 평가받고 있다.

사전연구는 상대평가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희정 외(2019)의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상대평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친구 관계에서의 자괴감, 성적 향상의 어려움에 따른 좌절감, 시험 기간 동안의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 등이 이들이 겪는 주요한 심리적 경험임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상대평가로 인한 구체적인 심리적 및 정서적 어려움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 사전연구(전희정, 2022)는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반응 패턴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유형으로 나타남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희정(2022)의 연구는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고등학생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 패턴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 반응의 시간적 안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만약 부정적 심리 경험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이는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학생들이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적응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패턴이 1년 동안 어떠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지를 잠재전이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대평가 환경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경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비교

상대평가로 인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는 사회비교이다. 성적이 상대적인 우열로 결정되는 제도하에서 학생들은 강제적이고 공개적인 비교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상대평가 제도하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공부방법, 공부시간 등 성적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학생은 사회비교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것이고 혹은 능동적 개입 없이도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비교 이론은 심리학자 Festinger(1954)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는 인간이 정확한 자기평가를 위해 타인과 비교하려는 내재적 욕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Festinger(1954)의 관점에서 사회비교는 인간이 당면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 개인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방식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Festinger는 사회비교를 의견비교와 능력비교로 구분하는데, 의견비교는 타인과 우열이 아닌 비교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으로 수평적인 비교를 지칭한다. 반면, 능력비교는 성적, 경제적 부와 같은 우열이 있는 수직적인 비교를 의미한다. 능력비교는 이후 다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비교의 방향에 따라 상향비교와 하향비교로 구분된다.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는 상향비교이며, 그 반대는 하향비교이다. 더하여 비교대상과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고 지각하는 여부에 따라 동화와 대조로 구분된다.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대상과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고 지각하면 상향동화비교에, 그렇지 않으면 상향대조비교에 해당한다. 하향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과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고 지각하면 하향동화비교에, 그렇지 않으면 하향대조비교 유형에 해당한다(Taylor & Lobel, 1989). 네 가지 비교 유형은 통제감의 유무에 따라 동화와 대조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상향동화비교와 하향대조비교는 비교자가 통제감을 느끼는 비교유형이다.

개인은 능력 비교에서 하향비교보다는 상향비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Gerber와 동료들(2018)은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기 위협이 없을 때는 하향비교보다 상향비교를 선호하고, 위협 상황에서도 하향비교 선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Festinger는 사회비교의 주요 동기를 자기평가로 개념화하였으며, 이후 연구자들은 자기향상과 자기고양을 추가적인 사회비교 동기로 제시하였다. 자기향상 동기를 가진 경우에는 주로 상향비교를 행하며, 현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자기고양 동기를 가진 경우에는 하향비교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rickman & Bulman, 1977; Gerber et al., 2018; Helgeson & Mickelson, 1995; Stanton et al., 1999; Taylor & Lobel, 1989; Wills, 1981; Zuckerman & O'Loughlin, 2006).

상대평가가 행해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비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적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무엇보다 자기향상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비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성적에 의한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자기고양 동기에 의해 하향비교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비교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정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비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어떤 유형의 사회비교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회비교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Smith(2000)의 사회비교정서 이론에 따르면, 관심의 초점을 비교자, 자신, 비교대상 중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정서가 다르게 나타난다. 상향동화의 경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희망, 비교대상에 초점이 맞춰질 때 존경, 초점이 양쪽에 모두 있을 때 고무(inspiration)라는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다. 반면 상향대조의 경우, 자신에게 초점을 둘 때 우울이나 수치심, 비교대상에 초점을 둘 때 분노, 양쪽에 초점을 둘 때 질투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 하향동화는 걱정, 두려움, 동정, 연민을, 하향대조는 자부심, 경멸,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샤덴프로이데)을 각각 유발한다. 상향동화와 하향대조는 비교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반면 상향대조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비교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요인은 사회비교의 빈도이다. White와 동료들(2006)은 사회비교의 방향성에 상관없이 사회비교의 빈도가 파괴적인 정서와 행동의 예측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하루에 얼마나 자주 사회비교를 하는지를 알아보고, 질투, 죄책감, 방어적 정서, 후회,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과 같은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비교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는데, 사회비교는 자아존중감에 부적 효과가 있으며, 우울증상에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hrens & Alloy, 1997; Blanc-Brillon et al., 2025; Gibbons & Buunk, 1999; Wayment & Taylor, 1995). McCarthy와 Morina (2020)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비교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54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비교는 우울 및 불안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상향비교는 주관적 안녕감에 해로운 효과가 있으며, 사회비교 과정은 자기(self)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정서 이론을 상대평가 제도하에 있는 학생들의 상황에 적용할 때, 이들이 비교대상과의 차이에 대해 지각하는 통제감의 유무는 사회비교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상향

비교 시에 비교대상과의 차이에 대한 통제감을 지각하지 못한다면 상향대조 비교에 참여하게 되며, 이 경우에 우울, 수치심, 분노,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주를 이룰 것이다. 사회비교 빈도가 높고 장기적일 경우 정신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대평가로 야기되는 심리적 요인들

상대평가와 관련된 심리적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현실을 반영하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내신제도와 상대평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전희정 외, 2019)는 심리적 경험의 핵심 요인과 맥락적 조건에 대한 복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치열한 학업경쟁 속에서 고등학생들이 친구관계에 대해 느끼는 부적합감, 내신성적이 오르지 않아 장벽처럼 여겨지는 좌절감, 자신의 개별성이 사라지고 등급으로만 취급되며 경험되는 상실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 정서와 같은 여러 심리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조절하는 최선의 적응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고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상대평가 제도하에서 학생들이 고군분투하며 나름의 적응 전략과 긍정적 의미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친구를 단지 친구로 여기지 못하며 느끼는 부적절감,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으로 인한 좌절감과 같은 요인들은 상대평가로 인해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 결과(전희정 외, 2019)를 토대로 경쟁기반 학업의 심리적 경험 척도(CLPE; 전희정, 2022)가 개발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심리적 경험에 근거한 10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각 하위척도는 내신 자기효능감,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 자기집중, 진로에 집중함, 특혜와 차별, 불합리한 상대평가, 상대평가의 긍정성이다.

전희정(2022)은 경쟁기반 학업의 심리적 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상대평가 제도하에서 고등학생의 심리적 적응유형을 조사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활용하여 상대평가 제도하에서 개인별 적응 패턴의 차이를 탐색하였으며, 네 개의 잠재집단이 확인되었다. 이 집단은 부적응집단(2.86%), 높은 비교와 경쟁집단(26.92%), 온건한 비교와 경쟁집단(45.68%), 낮은 비교와 경쟁집단(24.56%)으로 명명되었다. 온건한 비교와 경쟁 집단은 중간 수준의 비교와 경쟁과 함께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혼재된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부적응집단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나, 모든 하위 척도에서 부정적 지표를 보이며, 주관적 안녕감, 친구관계 및

성적 수준이 가장 낮았다.

높은 비교와 경쟁집단은 특히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집단은 성적 향상에 강한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비교와 경쟁에 참여하나,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양상이다. 반면 낮은 비교와 경쟁 집단은 위 네 가지 척도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준다. 이 집단은 [자기집중]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자기조절에 초점을 두는 적응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심리적 경험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3. 관련 변인들

상대평가 제도하에서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탐색한 후, 도출된 잠재계층의 특성을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으로 학업소진, 부모 성취압력의 지각, 부정적 정서를 선정하였다. 학업소진과 부정적 정서는 학생들이 치열한 학업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 성취압력 지각은 학업경쟁 참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과중한 학업부담은 학업소진을 유발할 수 있다(박성희, 김희화, 2008). 또한, 부모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수행목표 지향성이 높아지고, 비교와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강문비 외, 2023; 송영명, 이명자, 2009). 아울러 학업사회비교 과정에서 상향대조 또는 하향대조를 경험할 경우 부정적 정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잠재계층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인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상대평가 제도하에서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심리적 경험(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에 비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 자기집중, 진로에 집중함)은 구분되는 잠재집단으로 형성되는가? 또한, 각 잠재집단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2. 도출된 잠재집단의 두 시점 간 전이 양상은 어떠한가?
3. 확인된 잠재집단은 학업소진, 부모 성취압력 지각, 부정적 정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Ⅲ. 연구방법

1. 절차와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저자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보다 큰 종단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고등학생의 경쟁적 교육환경에서의 심리적 적응 변화를 2년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상대평가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지방광역시에 위치한 두 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으로, 해당 지역에서 학업 경쟁이 비교적 치열한 일반고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였다. 학교 선정 시에는 연구 협조 가능성과 추적 연구 수행의 현실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1차 자료는 연구참여자가 1학년 2학기인 2021년 12월에, 2차 자료는 2학년 2학기인 2022년 12월에 수집되었다.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기말고사 직후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동일한 시기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기에 따른 편차나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1차 자료수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299명이며, 2차 자료수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291명이다. 자료분석은 두 시점의 설문을 완료한 참가자 288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학교 행정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

2. 측정도구

1) 경쟁기반 학업의 심리적 경험

본 연구는 경쟁기반 학업의 심리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경쟁기반 학업의 심리적 경험(CLPE) 척도(전희정, 2022)를 사용하였다. CLPE는 총 10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6개 하위척도([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 [자기집중], [진로에 집중함])를 사용하였다. 제외된 네 하위척도([특혜와 차별], [불합리한 상대평가], [상대평가의 긍정성], [자기효능감])는 본 연구의 목적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특혜와 차별], [불합리한 상대평가], [상대평가의 긍정성]은 상대평가 제도에 대한 경험적 반응이라기보다 제도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반영하는 요인으로, 경쟁 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 과정을 직접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측면을 일부 포함하나, 학습 성공 경험에 근거한 신념의 성격이 강해 본 연구가 다루는 경쟁 상황에서의 정서적·심리적 경험과는 초점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포함된 여섯 척도는 학업 경쟁 상황에서 학습자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관여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 및 대처 양상을 포함하며, 상대평가 제도에서의 심리적 경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이 중 [진로에 집중함]은 경쟁 자체보다는 목표지향적 학습 태도를 나타내지만, 경쟁 상황에서 개인이 자기목표에 집중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심리적 반응의 한 국면을 탐색하는 데 의미가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포함된 하위척도는 각각 [불편한 비교와 경쟁] 5문항, [진로에 집중함] 4문항, 나머지 네 하위척도는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척도 개발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불편한 비교와 경쟁] .76,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82, [과도한 긴장감] .69, [부정적 자아상] .84, [자기집중] .74, [진로에 집중함] .86이다. 각 하위척도가 측정하는 구인의 조작적 정의, 예시 문항, 시점1 및 시점2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값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CLPE 하위척도, 조작적 정의, 예시 문항, 내적 일치도

하위척도	조작적 정의/예시 문항	내적일치도	
		시점1	시점2
불편한 비교와 경쟁	교우 간 학업사회비교와 그에 따른 불편감/ 교실은 경쟁을 부추기는 곳이다.	.78	.81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노력을 해도 성적향상이 되지 않아 느끼는 좌절감/ 등급을 올리는 것이 넘기 힘든 장벽처럼 여겨진다.	.76	.75
과도한 긴장감	시험기간에 느끼는 과도한 긴장감/ 작은 실수도 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험 볼 때 긴장이 된다.	.73	.76
부정적 자아상	내신성적으로 야기된 부정적 자아상/ 성적으로 인해 내가 작게 여겨질 때가 있다.	.86	.88
자기집중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려는 태도/ 등수에 얽매이기보다는 내 실력에 집중하려고 한다.	.83	.81
진로에 집중함	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도/ 나는 진로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다.	.86	.97

2) 학업소진, 부모 성취압력의 지각, 부정적 정서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학업소진, 부모 성취압력 지각, 부정적 정서를 선정하였으며, 잠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를 측정하였다. 대입수험생 증후군 척도(현지현, 김재철,

2019)의 하위척도 중 학업소진(3문항), 부모 성취압력의 지각(6문항), 부정적 정서(7문항)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 하위척도는 원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높은 대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소진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탈진, 냉소적 태도, 무능감을 측정하며, 예시 문항은 “공부로 인해 일상이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이다. 부모 성취압력의 지각은 부모의 기대에서 오는 압박감을 측정하며, 예시 문항은 “부모님(두 분 중 한 분이라도)은 대학을 잘 가야 한다고 압력을 주신다”이다. 부정적 정서는 수험 생활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 및 우울 증상을 측정하며, 예시 문항은 “요즘 심정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 개발 연구에서 학업소진, 부모 성취압력 지각, 부정적 정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5, .90, .93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치도는 각각 .71, .90, .88이다.

3. 데이터 분석

본 자료분석 이전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잠재전이분석을 수행하였다. Moore와 동료들(2025)이 제시한 잠재전이분석 최적의 수행 지침을 따라 다음의 6단계에 걸쳐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1년의 시간 차를 두고 두 시점(T1과 T2)에서 각각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계층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늘려가며 각 모형의 적합도를 정보지수, 엔트로피 지수, 모형비교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정보지수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AIC, BIC, 그리고 SABIC 수치가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해석한다(Nylund-Gibson & Choi, 2018; Sclove, 1987; Spurk et al., 2020). Entropy 지수는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양호한 것이다(Clark & Muthén, 2009; Nylund-Gibson & Choi, 2018). 모형비교검증은 계층 수가 하나 더 작은 모형($n-1$ 모형)과 비교하며, n 모형의 모델적합도가 유의미하게 더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_LRT)와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을 사용하였다.

둘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모형이 잠재 집단을 양호하게 구분하는지를 확인하였다(잠재집단 분류의 정확성 평가). 우선, 모집단 수준에서 추정된 각 클래스의 비율과 데이터에서 각 참가자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모달) 클래스에 배정한 비율을 비교하였다. 모달 클래스 배정 비율이 모델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내에 포함된다면, 이는 모형이 클래스 배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Moore et al., 2025). 더하여 평균사후확률과 정확분류 배당비율(OCC)을 알아보았다. 평균사후확률은 각 잠재 클래스에 실제로 할당된 참가자들의 사후확률의 평균값을 지칭한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하며, 0.80 이상일 경우 양호한 분류임을 의미한다. 정확분류배당비율(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 OCC)은 모형이 무작위 배정보다 계층 분류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며, 5이상이면 적절한 분리와 정확성을 의미한다(Moore et al., 2025).

셋째, 확인된 잠재 집단을 명명하였다. 넷째, 각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결과를 바탕으로 시점 간 잠재집단 측정의 불변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두 시점에서 동일한 수의 잠재 집단과 형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을 평가하였다. 이후 잠재집단을 구성하는 연속형 측정지표의 평균 (mean)을 동일하게 제한한 평균동일성 모형(mean invariance 모형)을 형태동일성 모형의 내포(nested) 모형으로 설정하고,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T)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산동일성 모형과 평균동일성 모형 간 우도비검정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이 유의하게 저하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모형 간 적합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제한된 모형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불변성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 다섯째, 확인된 측정불변성 모형에 근거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수행하고 잠재전이 비율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잠재계층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업소진, 부모 성취압력의 지각, 부정적 정서를 결과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잠재계층 간 결과변인의 평균 차이는 Mplus의 BCH(Bolck, Croon & Hagenars, 2004)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연구에 포함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두 시점의 동일 변인은 중간 크기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대부분의 변인들이 예상되는 방향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 잠재프로파일 분석

시점1(T1)과 시점2(T2)에서 각각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늘려가며, 각 모형의 정보 지수(AIC, BIC, SABIC), 엔트로피, 모형비교검증의 p

값을 확인하였다(참조 표 3). 두 시점 모두에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Log-likelihood, AIC, SABIC 값은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BIC 값은 3집단 모형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선행 연구(Nylund et al., 2007; Weller et al., 2020)에 따르면, BIC는 모형 적합도 평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 기준으로, 잠재집단 수를 과대추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엔트로피 지수는 모든 모형에서 0.7 이상의 수용 가능하거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모형비교검증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모형이 적합도가 높으나, 정보 지수와 이론적 타당성을 종합 고려하여, 각 시점에서 3집단 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시점	모형	LLG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	BRT
T1	2 class	-2320.48	4678.96	4748.36	4688.11	0.71	.000	.000
	3 class	-2275.56	4603.11	4698.07	4615.63	0.77	.004	.000
	4 class	-2260.55	4587.09	4707.62	4602.98	0.83	.058	.020
	5 class	-2244.28	4568.56	4714.66	4587.82	0.79	.074	.000
T2	2 class	-2091.29	4220.57	4288.37	4228.13	0.78	.000	.000
	3 class	-2056.86	4165.73	4258.50	4176.07	0.76	.024	.000
	4 class	-2039.73	4145.47	4263.22	4158.6	0.81	.003	.000
	5 class	-2027.46	4134.92	4277.66	4150.84	0.81	.578	.040

표 2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들 간 상관관계

연구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T1 비교와 경쟁	-														
2.T1 노력 무반영 성적	.34**	-													
3.T1 과도한 긴장감	.34**	.35**	-												
4.T1 부정적 자아상	.54**	.52**	.46**	-											
5.T1 자기집중	-.25**	-.33**	-.29**	-.42**	-										
6.T1 진로에 집중함	.05	-.03	-.01	-.04	.15*	-									
7.T2 비교와 경쟁	.55**	.23**	.31**	.42**	-.24**	-.09	-								
8.T2 노력 무반영 성적	.28**	.44**	.32**	.30**	-.22**	-.08	.48**	-							
9.T2 과도한 긴장감	.21**	.14*	.60**	.26**	-.19**	-.02	.40**	.48**	-						
10.T2 부정적 자아상	.33**	.30**	.33**	.54**	-.24**	-.11	.57**	.58**	.50**	-					
11.T2 자기집중	-.18**	-.17**	-.12	-.23**	.34**	.14*	-.19**	-.26**	-.13*	-.28**	-				
12.T2 진로집중	.05	-.04	.00	-.11	.11	.30**	-.11	-.05	-.03	-.12*	.28**	-			
13.T2 학업소진	.30**	.26**	.16*	.27**	-.22**	-.10	.35**	.39**	.24**	.38**	-.27**	-.16**	-		
14.T2 부모 성취압력	.20**	.16**	.09	.21**	-.21**	-.19**	.22**	.29**	.10	.28**	-.29**	-.17**	.38**	-	
15.T2 부정적 정서	.21**	.23**	.15*	.37**	-.18**	-.20**	.32**	.41**	.22**	.56**	-.28**	-.24**	.51**	.48**	-
M	2.78	3.27	3.12	3.15	3.17	3.39	2.77	3.31	3.30	3.13	3.38	3.45	3.29	2.52	2.66
SD	.80	.92	1.03	1.09	.86	.51	.85	.84	1.03	1.10	.82	.56	.90	1.00	1.10

3. 잠재집단 분류의 정확성 평가

확인된 3집단 모형이 잠재집단을 적절히 분류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우선 선택된 모형이 추정한 각 집단별 비율과 연구참여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배정된 비율(모달 클래스 배정 비율, mcaP)을 비교하였으며, 모달 클래스 배정 비율이 모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평균 사후 확률(AvePP)과 정확분류배당비율(OCC)을 확인하였다(참조 표 4). 두 시점 모두에서 모든 집단의 mcaP가 모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모형이 각 집단별 분류를 적절히 반영함을 의미한다. 평균 사후 확률은 가장 낮은 값이 0.87로서, 모든 집단에서 우수한 분류 정확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확분류배당비율(OCC)이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나, 3집단 모형이 참여자를 무작위 배정보다 유의미하게 더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잠재집단 분류의 정확성 평가

시점	집단	모형추정치		mcaP	AvePP	OCC
		Proportion	95% 신뢰구간			
t1	자기집중 우세	13.24	(6.6, 22.2)	12.63	0.90	59.00
	온건한 비교와 경쟁	52.2	(42.0, 63.2)	53.33	0.89	7.41
	비교와 경쟁 우세	34.56	(22.0, 47.4)	34.04	0.89	15.31
t2	자기집중 우세	15.22	(7.2, 27.0)	14.12	0.94	87.30
	온건한 비교와 경쟁	45.14	(32.0, 59.4)	46.18	0.87	8.13
	비교와 경쟁 우세	39.64	(18.7, 55.9)	39.70	0.90	13.71

4. 잠재집단의 명명

각 잠재집단의 추정 비율과 심리적 경험 변인의 평균 점수를 표 5에, 이를 그래프로 변환한 것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이 함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며, 자기집중과 진로에 집중함은 이와 반대 방향에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성적 향상의 어려움, 심리적 긴장, 부정적 자아상을 함께 경험하는 반면, 자기집중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두 시점 모두에서 첫 번째 집단은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면 자기집중과 진로에 집중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집단은 비교와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가 낮으면서 자기집중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으로 해석되며, 자기집중 우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의 비율은 시점 1에서는 13.24%, 시점 2에서는 15.22%였다.

두 번째 집단은 사회비교와 관련된 부정적 심리적 경험을 중간 수준에서 경험하고, 자기집중과 진로에 집중함 역시 중간 수준을 보였다. 이 집단은 온건한 비교와 경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의 비율은 시점 1에서는 52.2%, 시점 2에서는 46.14%이다. 세 번째 집단은 두 시점 모두에서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을 높은 수준에서 경험하는 반면, 자기집중과 진로에 집중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집단을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의 비율은 시점 1에서는 34.56%, 시점 2에서는 39.6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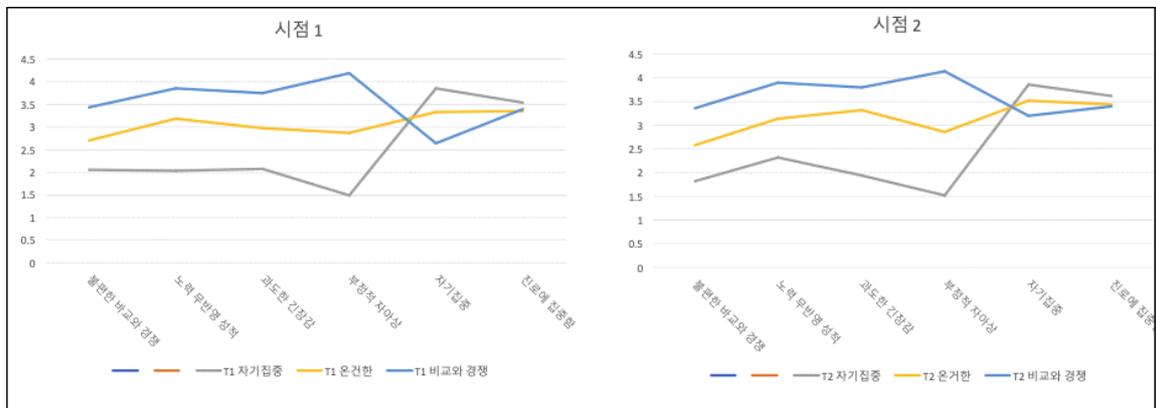


그림 1. 확인된 잠재집단별 측정지표의 평균값

표 5
확인된 잠재집단의 추정 비율과 평균값

집단집	추정 비율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	자기집중	진로에 집중함
T1 자기집중	13.24%	2.06	2.03	2.07	1.48	3.85	3.54
T1 온건한	52.20%	2.70	3.19	2.97	2.87	3.34	3.35
T1 비교와 경쟁	34.56%	3.44	3.86	3.76	4.20	2.65	3.40
T2 자기집중	15.22%	1.82	2.32	1.95	1.53	3.86	3.63
T2 온건한	45.14%	2.59	3.14	3.32	2.86	3.52	3.44
T2 비교와 경쟁	39.64%	3.36	3.90	3.81	4.14	3.21	3.40

참조. 자기집중: 자기집중 우세, 온건한: 온건한 비교와 경쟁, 비교와 경쟁: 비교와 경쟁 우세

5. 측정불변성 검증

시점1과 시점2에서 도출된 잠재집단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에서 선택된 3집단 모형을 대상으로 두 시점 간 측정불변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3집단 모형에 대해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다음, 측정변인의 평균을 동일하게 제한한 평균동일성 모형(mean invariance model)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형태동일성 모형과 평균동일성 모형 간의 우도비검증(Likelihood Ratio Test, LRT) 결과, 평균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되지 않아 평균동일성 모형이 수용되었다.

이어 평균에 더해 분산도 동일하게 제한한 분산동일성 모형(variance invariance model)의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LRT 결과 적합도가 유의하게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시점 간 잠재집단 측정에 대해 부분적 불변성(partial invariance)이 지지되었으며, 이후 잠재전이분석은 부분적 불변성 모형, 즉 평균동일성 모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측정불변성 검증 결과

모형	LL	npar	LRT	p	AIC	BIC	SABIC	Entropy
형태동일성 모형	-4325.18	52			8754.36	8944.47	8779.57	.80
평균동일성 모형	-4334.60	34	18.8	.40	8737.21	8861.51	8753.7	.77
분산동일성 모형	-4239.83	40	190	.00	8559.66	8705.89	8579.05	.77

6. 잠재전이분석

평균동일성 모형(mean invariance model)을 적용하여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였고, 시점1에서 시점2로의 잠재 집단 전이 확률을 확인하였다(참조: 표 7). 분석 결과,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은 시점1에서 시점2로 전이할 때 자기 집단에 머무를 확률이 80%로 높게 나타났다. 온건한 비교와 경쟁 집단은 71%, 자기집중 우세 집단은 5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기 집단 내 안정성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비교 및 경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안정성이 높았으며, 낮은 수준의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시점1에서 시점2로의 전이 확률

집단	자기집중 우세	온건한 비교와 경쟁	비교와 경쟁 우세
자기집중 우세	0.53	0.43	0.04
온건한 비교와 경쟁	0.12	0.71	0.17
비교와 경쟁 우세	0.08	0.13	0.80

7. 확인된 잠재집단의 특성

확인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점 2의 학업소진, 부모 성취압력 지각, 부정적 정서를 결과변수로 선정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참조 표 8). 세 결과 변수에 대해 사후 다중 비교(post hoc multiple comparisons)를 실시하였으며, 제1종 오류(Type I error) 방지를 위해 유의수준(α)을 0.05에서 Bonferroni 보정을 통해 0.017로 조절하였다. 표 8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p값을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소진과 부모 성취압력 지각에서는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이 자기집중 우세 집단과 온건한 비교와 경쟁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에서도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온건한 비교와 경쟁 집단이 자기집중 우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이 세 결과 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표 8
학업소진, 부모 성취압력 지각, 부정적 정서 집단 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M, SD)	비교 집단	χ^2 값	p 값
학업소진	자기집중 (3.18, .42)	온건한 vs. 자기집중	2.78	0.100
	온건한 (4.14, .36)	온건한 vs. 비교와 경쟁	27.79	< .0001
	비교와 경쟁 (4.95, .38)	자기집중 vs. 비교와 경쟁	10.55	0.001
부모 성취압력 지각	자기집중 (1.87, .26)	온건한 vs. 자기집중	4.23	0.040
	온건한 (2.43, .20)	온건한 vs. 비교와 경쟁	7.3	0.007
	비교와 경쟁 (3.01, .37)	자기집중 vs. 비교와 경쟁	13.11	< .0001
부정적 정서	자기집중 (1.97, .27)	온건한 vs. 자기집중	8.12	0.004
	온건한 (2.82, .24)	온건한 vs. 비교와 경쟁	66.24	< .0001
	비교와 경쟁 (4.30, .39)	자기집중 vs. 비교와 경쟁	50.66	< .0001

참고. 자기집중: 자기집중 우세, 온건한: 온건한 비교와 경쟁, 비교와 경쟁: 비교와 경쟁 우세

IV. 논 의

고등학생들이 상대평가 제도하에서 보이는 심리적 경험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고, 1년 동안 심리적 경험의 전이 양상을 조사하였다. 상대평가에 수반하는 심리적 경험의 지표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전희정, 2022)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 자기집중, 진로에 집중함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두 시점 모두에서 3집단 모형이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3집단 모형은 심리적 경험의 양상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개의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우선, 6개의 지표 중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반면 자기집중과 진로에 집중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 불편한 비교와 경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 과도한 긴장감, 부정적 자아상은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비교와 경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경우에 함께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기집중은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좌절 및 불편감과 부적 관계를 보여준다. 세 개의 프로파일에서 이러한 지표 간 관계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불편감의 정도는 비교와 경쟁에 심리적으로 참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시험점수가 향상되지 않아 경험하는 좌절감, 시험 기간에 느끼는 과도한 긴장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심리적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집중은 이러한 비교와 경쟁의 정도와 반대 방향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 비교와 경쟁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의 내적인 욕구와 기준에 집중하는 대처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 자기집중이 비교와 경쟁에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사전연구(전희정, 2022)에서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확인된 세 개의 집단은 각각 비교와 경쟁 우세, 온건한 비교와 경쟁, 자기집중 우세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온건한 비교와 경쟁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시점1 52%, 시점2 45%). 심리적 경험 지표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5점 척도의 문항에서 중간 점수인 3점을 중심으로 약 ± 0.5 범위(2.59~3.52)에 분포하여, 이들은 비교와 경쟁에 따른 심리적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나 그 정도가 약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에도 상당한 비율이 포함되는데(시점1 35%, 시점2 40%), 이들은 비교와 경쟁에 따른 심리적 좌절감과 불편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학업 경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집단의 자기집중 점수는 세 집단 중 가장 낮다. 더하여 이 집단은 학업소진, 부정적 정서, 부모 성취압력 지각의 정도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 부모로부터의 압력, 부정적 정서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기집중 우세 집단은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과 상반된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비교와 경쟁에 따른 심리적 좌절이나 불편감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자기집중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집단은 부모 성취압력 지각과 부정적 정서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업소진 또한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심리적 및 정서적으로 가장 적응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프로파일 양상을 보이는 3집단 모형은 학생들이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보이는 개인차를 반영한다. 선행연구(전희정, 2022)에서는 부적응 집단, 온건한 비교와 경쟁 집단, 낮은 비교와 경쟁 집단, 높은 비교와 경쟁 집단을 포함한 네 집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부적응 집단을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한 양상이다. 비교와 경쟁이 우세한 집단, 자기집중이 우세한 집단, 그리고 평균적인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자기집중을 보이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부적응 집단은 전체의 약 3% 정도의 소수집단으로, 표본의 구성이나 분포에 따라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잠재집단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확인된 잠재집단이 1년 후에 유지되는지, 혹은 변화되는지를 잠재전이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점1의 심리적 경험 유형이 시점2에서 유지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은 8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온건한 비교와 경쟁 집단은 71%, 자기집중 우세 집단은 5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교와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 집단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고, 비교와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와 경쟁 우세 집단이 뚜렷한 심리적 불편감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개인의 태도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경쟁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학업동기와 관련하여 일정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면 자기평가, 자기향상, 자기고양의 동기에 따라(Festinger, 1954; Helgeson & Mickelson 1995; Zuckerman & O'Loughlin, 2006) 사회비교 행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기본적으로 자기평가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적, 공부방법, 사교육유무 등과 같은 여러 사항에서 다른 학우와 자신을 비교하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적 향상의 목적이 뚜렷한 경우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대상과 비교하고 비교 대상과 유사하게 되려는 자기향상의 동기도 충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상대평가의 시행은 자아(self)에 대한 위협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고양의 동기로 인해 비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기집중 우세 집단은 약 53%가 그 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이 상대평가 제도하에서 질적으로 구분되는 적응 집단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상대평가라는 제도하에서 비교와 경쟁에 따른 불편감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과도한 긴장감과 부정적 자아상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학업소진, 부모 성취압력 지각, 부정적 정서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여, 질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에서 자기집중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사회비교로 인한 부정적 정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높은 자기집중의 수준이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심리적 및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집단의 크기와 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점은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거나, 학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행동을 변화시켰을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적응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수도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 지향성과 외부환경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개인이 취하는 행동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대평가 제도하에서 비교와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요구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며 자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집단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환경의 기준에 맞춰 적응하려 하고, 성취와 성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나,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학업소진과 부정적 정서가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집단은 경쟁적 환경에 적응한다는 점에서는 '적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부정적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즉, 경쟁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는 교육환경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행동이지만, 이로 인한 과도한 비교와 긴장,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이 심리적, 정신적 안녕과 조화되지 못할 때,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에서 오는 피곤감과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동기와 만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을 내신 등급과 같은 외부적 지표로 내면화하게 만들며,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경쟁 참여를 단순히 학업 동기의 산물로 보기보다, 학업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정서적 소진과 부정적 자아상을 함께 고려하며 정서적 안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습 과정에서 과도한 사회비교를 완화하고 내재적 학습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비교 중심적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학습 참여를 돕는 지지적 양육 태도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1년의 시간 차를 두고 심리적 경험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았다. 현실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러한 심리적 경험이 유지된다면, 비교와 경쟁에 따른 심리적 긴장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성적으로 인한 좌절감이 오랜 기간 지속됨을 의미한다. 이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가 높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강한 학생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불가피하게 심리적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의 부정적 경험은 단순히 부적응의 결과라기보다는, 성취지향성과 경쟁적 환경 조건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의 부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1년 이상 유지될 경우, 장기적 심리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의 어려움, 안정적인 태도로 형성된 사회비교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목적추구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 타인과의 관계에서 등급과 같은 상대적 위치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 등은 발달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 성격 형성, 대인관계에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정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높은 비교와 경쟁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약 30~40%에 이르러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맞는 적절한 심리적 개입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학업 스트레스를 학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어려움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과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학생들이 자신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을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쟁적인 교육환경이 학생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부모, 교사, 일반인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에 알리고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상대평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절대평가 도입을 포함한 평가체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가방식의 전환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미래세대의 건강한 심리·정서적 성장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이다. 또한, 출세우기식 경쟁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이 새로운 세대에게 요구되는 창의성, 문제해결력, 재능의 다양성을 충분히 촉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은 학생들이 자신의 내적 흥미와 재능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작은 크기의 표본에 근거하여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소수가 포함된 잠재집단의 확인을 저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는 보다 큰 표본을 사용하여 잠재집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 수집이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두 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자료 수집이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정적 정서, 심리적 긴장감과 같은 요인들은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보충되었을 때 더욱 생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대평가제도 환경 하에서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유형과 그 전이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및 정신적 경험의 개인차에 주목하여 세 가지로 구분되는 프로파일을 도출하였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이 1년에 걸친 시간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이동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적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고, 향후 정신건강 지원 및 효과적인 개입 방안 마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문비, 이우걸, 송주연 (2023). 부모 성취압력과 자녀의 성취목표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 연구**, 37(2), 165-186. doi:10.17286/KJEP.2023.37.2.03
- 교육부 (2023).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55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김정호, 이경숙 (2000).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43-59.
- 김진아 (2015).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359-377. doi:10.15703/kjc.16.3.201506.359
- 박성희, 김희화 (2008).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3), 159-182.
- 송영명, 이명자 (2009).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123-140.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2024년 청소년 통계 보고서**.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73
- 전희정, 손호양, 우주영 (2019).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내신제도와 상대평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6(3), 401-431. doi:10.16983/kjsp.2019.16.3.401
- 전희정 (2022). 경쟁기반 학업의 심리적 경험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22(3), 509-525. doi:10.22251/jlcci.2022.22.3.509
- 전희정 (2023). 상대평가와 고등학생의 심리적 적응 유형: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적용. **청소년학 연구**, 30(2), 473-495. doi:10.21509/KJYS.2023.2.30.02.473
- 통계청 (2022).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통계청.
- 현지현, 김재철 (2019). 대입수험생 증후군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학연구**, 26(12), 305-334. doi:10.21509/KJYS.2019.12.26.12.305
- Ahrens, A. H., & Alloy, L. B. (1997).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depression. In B. P. Buunk & F. X. Gibbons (Eds.), *Health, coping, and well-being: Perspectives from social comparison theory* (pp. 389-41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olck, A., Croon, M., & Hagenaars, J. A. P. (2004). Estimating latent structure models with categorical variables: One-step versus three-step estimators. *Political Analysis*, 12(1), 3-27. doi:10.1093/pan/mp001

- Le Blanc-Brillon, J., Fortin, J. S., Lafrance, L., & Hétu, S. (2025). Th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comparison on social media and young adults' mental health. *Frontiers in Psychology, 16*.
- Brickman, P., & Bulman, R. J. (1977). Pleasure and pain in social comparison. In J. M. Suls., & R. L. Miller (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pp. 149-186). NW: Washington, DC.
- Clark, S. L.,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http://www.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Gerber, J. P., Wheeler, L., & Suls, J. (2018). A social comparison theory meta-analysis 60+ years on. *Psychological Bulletin, 144*(2), 177-197. doi:10.1037/bul0000127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doi:10.1037/0022-3514.76.1.129
- Helgeson, V. S., & Mickelson, K. D. (1995). Motives for social compari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11), 1200-1209. doi:10.1177/01461672952111008
- Lok, B., McNaught, C., & Young, K. (2016). Criterion-referenced and norm-referenced assessments: compatibility and complementarity.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41*(3), 450-465. doi:10.1080/02602938.2015.1022136
- McCarthy, P. A., & Morina, N. (2020). Exploring the association of social comparis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7*(5), 640-671. doi:10.1002/cpp.2452
- McPherson, K. E., Kerr, S., McGee, E., Morgan, A., Cheater, F. M., McLean, J., & Egan, J.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and behavioural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 integrative systematic review. *BMC Psychology, 2*(1), 7. doi:10.1186/2050-7283-2-7
- Moore, E. W. G., Quartiroli, A., & Little, T. D. (2025). Introduction to the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longitudinal latent transitio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60*(2), e70021. doi:10.1002/ijop.7002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461. doi:10.1037/tps0000176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 Smith, R. H. (2000). Assimilative and contrastive emotional reactions to upward and downward social comparisons. In Suls, J., & Wheeler, L (Ed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pp. 173-200). MA: Springer, Boston.
- Spurk, D., Hirschi, A., Valero, D., Wang, M., & Kauffeld, S.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A review and "how to" guide of its application within vocation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0, 103445. doi:10.1016/j.jvb.2020.103445
- Stanton, A., Dano-Burg, S., Cameron, C. L., Snider, P. R., & Kirk, S. B. (1999). Social comparison and adjustment to breast cancer: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upward aliation and downward evaluation. *Health Psychology*, 18(2), 151-158. doi:10.1037/0278-6133.18.2.151
- Taylor, S. E., & Lobel, M. (1989). Social comparison activity under threat: Downward evaluation and upward contacts. *Psychological Review*, 96(4), 569-575 .
- Wayment, H. A., & Taylor, S. E. (1995). Self-evaluation processes: Motives, information use,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63(4), 729-757. doi:10.1111/j.1467-6494.1995.tb00315.x
- 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 Latent Class Analysis: A Guide to Best Practic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6(4), 287-311. doi:10.1177/0095798420930932
- White, J. B., Langer, E. J., Yariv, L., & Welch, J. C. (2006). Frequent social comparisons and destructive emotions and behaviors: The dark side of social comparison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1), 36-44. doi:10.1007/s10804-006-9005-0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 245-271
- Zuckerman, M., & O'Loughlin, R. E. (2006). Self-enhancement by social comparison: A prospectiv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6), 751-760. doi:10.1177/0146167205286111

ABSTRACT

Patterns of psychological experiences in competitive learning environments: Application of latent transition analysis

Chun, Heejung*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atterns of psychological experienc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under a relative grading system and to explore the transition of these psychological experiences in a one-year interval. A total of 288 high school students enrolled in high schools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Psychological experiences elicited by the relative grading system were measured using six indicators: uncomfortable social comparison and competition, grades not reflecting effort, excessive tension, negative self-image, self-focus, and career focus. Longitudinal data collected at a 12-month interval were used for the analysis. A latent profile analysis identified a three-group model to be optimal at both time points, with three distinct profiles of psychological experiences. These profiles were characterized as a high comparison and competition group, a moderate comparison and competition group, and a self-focus-dominant group. Four indicators—uncomfortable comparison and competition, grades not reflecting effort, excessive tension, and negative self-image—moved together, either increasing or decreasing, while self-focus and career focus mov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high comparison and competition group showed high levels of psychological frustration and discomfort along with low self-focus, whereas the self-focus dominant group exhibited the opposite pattern. A latent transition analysis revealed that approximately 80% of the high comparison and competition group remained in the same group after one year, whereas only 53% of the self-focus dominant group maintained their status, indicating relatively lower stab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udents that actively engage in comparison and competition tend to sustain these attitudes steadily despite psychological difficultie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engagement in academic competition reflects not a temporary reaction but a relatively stable pattern of psychological experience.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persistence in psychological experiences under a relative grading system and offers important educa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upporting students' mental health and adaptation.

Key Words: competitive learning environment, social comparison, psychological experience, high school students, latent transition analysis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Professor